

전훈캠프 日 시즈오카를 가다

일본 수도권에 50만 명의 폭설이 왔다고 했을 때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4박5일의 출장이 6박7일의 블록버스터급의 재난 취재가 될 줄. 1부 승격을 목표로 한 광주 FC의 캠프지는 일본 시즈오카 고텐바. 2011년 광주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한 뒤 네 번째 맞는 그들의 캠프다.

# 소치 보다 뜨거웠네... 광주FC 겨울캠프

日 시즈오카 = 글·사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말형 백민철 부터 막내 오도현까지  
눈 밟 그라운드서 뛰고 또 뛰고...  
리그 승격 한마음 땀에 젖은 한솔밤



광주 FC 선수단이 일본 시즈오카 도끼노스미까 스포츠 센터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2014시즌 협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캠프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 ◇어색했던 그들의 친밀한 동거

겨울은 결실의 가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번 겨울은 광주에게 더 특별한 시간이다. 7명의 선수를 빼고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다. 물러설 수 없는 시즌을 위해 뼈를 깎는 변화 속에 맞은 2014시즌 캠프다.

“내가 이적생이 된 것 같다”던 기존 선수도, 새 유니폼을 입은 이적생들도 모두 어색했던 출발. 광주에서 광양에서 손발을 맞추던 이들은 시즈오카에서 본격적으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굳이 목표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알아서 선수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7살 말형 백민철(GK)부터 이제 20살이 된 막내 오도현(DF)까지 이들이 그리는 올 시즌의 모습은 우승이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그라운드를 뛰고 땀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들은 어느새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물론 쉽지 않은 변화였다. 창단 멤버로 광주의 지난 3년을 지킨 안선영과 김호남은 심한 가슴앓이도 했다. 이번에는 앞선 두 해보다 더 많은 이들이 떠났다. 변화가 낯설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의 벽을 허물기로 했다. 김호남은 “내가 먼저 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새로 온 선배들은 스스럼없이 나를 대하는데 내가 벽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을 바꾸니 편해졌다”고 말했다.

특별한 말이 없던 선수들과 그들에게서 노하우를 배워가는 후배들. 광양에서 보았던 어색해 하던 그들과 달리 시즈오카에서 만난 그들은 어느새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팀워크

마음은 푸른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지만 캠프 초반 여건은 녹녹치 않았다. 눈이 흔한 곳이 아니라면 시즈오카에 눈이 내린 것이다. 아니 눈이 쏟아졌다.

한 차례 폭설이 지나가면서 움츠러 있던 광주 캠프에 3일 만에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선수들의 발이 눈에 묶였다. 도끼노스미까 스포츠센터의 그라운드를 덮고 또 덮은 눈에 결국 코칭스태프가 삽을 집어들었다.

김영철 수석코치를 필두로 코칭 스태프들이 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피지컬 코치와 알베스 골키퍼 코치도 눈발에 뛰어들면서 다른 팀 선수들에게는 진기한 구경거리가 생겼다. 실내 웨이트장에서 운동을 하던 일본 선수들의 표정은 그랬다. “저런 무모한...”

그러나 불가능은 없었다. 남기일 감독대행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고, 휴식을 취하던 선수들이 소문을 듣고 눈밭으로 걸음을 했다. 숙소 바로 앞 그라운드. 푹푹 눈에 발이 빠지면서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광주 선수들의 발자국이 가지런히 눈위에 찍히기 시작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눈밭에서 광주는 하나가 됐고 결과는 의외의 한국인이었다. 두 시간의 시간이 흘러 선수들은 눈 벽에 둘러 쌓인 그라운드에서 공을 차면서 일본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의지의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동안 일본 수도권의 교통은 폭설에 전면 마비가 됐다. 휴식일을 앞둔 저녁 회식. “밤 11시까지 외출”이라는 소리에 선수들의 쓴 웃음이 터진 것도 그 이유에서다.

캠프는 눈에 고립됐다. 공항으로 가는 차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뜨지 못했다. 그렇게 캠프 출발 일정은 자동 연장됐다.

###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눈발을 구르고 눈이 퍼지지 않는 비바람에 연습경기 하면서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던 선수들에게 찾아온 달콤한 휴식날. 선수들이 모처럼 도심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일본 J리그의 열기를 느끼기 위해 광주 선수단이 버스에 올랐다. 캠프에서 한 시간 거리의 니혼다이라구장이 이들의 목적지였다.

시미즈 S 펄스의 연습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부지런히 점심을 챙겨 먹고 길을 나섰다. 곳곳에 쌓인 눈에 속소를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출발. 설상가상 그곳에도 너무 느긋한 일본인들의 운전습관에 연습경기가 시작돼서야 겨우 경기장에 자리를 할 수 있었다.

같은 도시인이 싫을 정도로 전혀 다른 날씨와 관중석을 그득 채운 경기장은 신세계였다. 연습경기를 보기 위해 3000엔이라는 만만치 않은 입장료까지 지불한 팬들은 경기 끝날 때까지 그들이 사랑하는 팀을 외치며 그라운드를 달렸다. 경기장 뒤편으로 보이는 후지산의 운치도 환상적이었다.

스파이크를 벗고 도심 나들이를 하면서 만끽한 휴식일. 여기까지는 좋았다. 눈이 다시 이들을 막았다. 오후 8시에 출발한 버스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숙소의 언덕을 넘고 있었다. 눈에 이어 좁은 버스에 갇힌 선수들. 그러나 웃음은 계속됐다. 음악도 흘러나왔다. 최신곡에서부터 흘러간 노래까지 누군가가 DJ가 돼서 버스에 음악을 올렸다.

“도현아 넌 이 노래 모르지?”라며 흘러나온 노래는 1992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1994년생 막내 오도현의 어디동절함과 고참들의 흥얼거림 그리고 “나 고등학교 때 음악이야”라는 남기일 감독 대행의 한마디까지. 꽉막힌 길 위 좁은 버스 안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협난했던 길에 피었던 웃음꽃. 그 웃음꽃처럼 광주의 시즌도 활짝 피기를 기대해본다.

### 캠프 이모저모



훈련 보다 급한 눈 치우기



어름의 인터뷰에 웃음 터진 임선영(좌)과 김호남(우)



골키퍼의 이름으로-



인증샷 찍으며 망중한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